

운전·보전원의 능력 향상과 교육훈련체계 확립 및 실시 한다.

(5) 설비·제품 초기관리(주체-생산기술, 보전 스텝, R&D)

설비설계에서 정상화 기간 단축 및 제품개발에서 상품화 기간을 단축한다.

(6) 품질보전(주체-QA·생산기술, 스텝, 라인리더 불량 현상과약에서 개선 및 기준 재설정 등으로 불량재료를 실현한다.

(7) 안전환경위생(주체-안전, 환경, 위생 스텝)

재해 Zero 달성·유지 및 신바람 나는 직장을 실현한다.

(8) 관리간접 부문 효율화(주체-관리간접부문 멤버, 리더)

사무 간접부문의 자주보전 및 효율화를 통해 사무효율화 및 생산지원체제를 구축한다.

3. TPM의 필요성

제주삼다수는 그동안 비약적인 급속 성장과 경쟁을 통해 무에서 유를 창출해 왔다. 그러다 보니 안전에 대해서 다소 무관심해 졌고, 이는 사업장에서 여러 형태의 문제점이 도출되면서 근로자의 의식 개혁의 필요성도 함께 대두되어 기본부터 시작하자라는 의미로 지난해 5월부터 TPM을 도입하였다.

처음 TPM에 대해서 근로자의 20%만 긍정적이었고, 나머지 근로자들은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타사 사례를 접하고, 전문교육을 비롯해 제주삼다


수가 직접 변화되는 것을 본 근로자들은 대부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스스로 하려고 하는 직장 풍토로 자리하고 있다.

매일 분임조 활동을 통한 문제점 도출과 구호를 통한 인식 전환 및 해결, 작업시작전 위험예지활동보고서 작성, 불합리 LIST 작성, TPM 전담요

원에 의한 Top의 관심을 유도하고 밑의 근로자를 이끌어 상호 연결고리 역할 등은 신바람나게 일 할 수 있는 제주삼다수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설비도입과 급속한 생산 증가로 다소 TPM이 소홀해 지면서 사소하나마 제주삼다수는 안전에 구멍이 뚫리는 것을 보면서 더욱 TPM 추진의 끈을 동여 맨다.

4. 맺음말

안전은 방심하면 분명 구멍이 뚫린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낀 제주삼다수는 아픔을 교육삼아 안전에 더욱 매진한다. 오늘 방문한 날에도 분임조활동이 한창이다. 어느 누가 지시한 것도 아닌데, 시간이 되자 하나 둘 모여 열띤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지금 제주삼다수는 TPM 활동 중 0 Step에서 7 Step까지의 자주보전활동에서 2 Step인 발생원·곤란개소대책이 한창 진행중이며, 앞으로 1년 6개월 이내에 8 Step까지 진행하여 제주삼다수의 TPM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최종덕 기자〉

